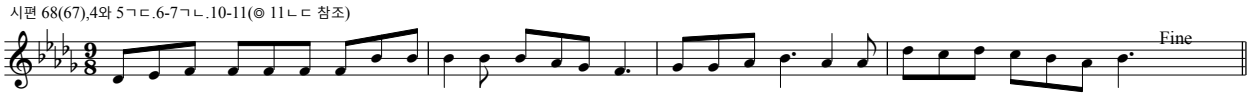
9월1일 화답송_ 연중 제 22주일

김은민 Cecillia 曲



하 느 님, 당 신 은 가 련 한 이 를 위 - 하 여 은 혜 로 이 집 을 마 련 하 셨 나 이 다.